

#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문학의 효용성

## Utility of Literary Works in English Education

이종복  
목원대학교

Jongbok Lee(jblee@mokwon.ac.kr)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 영어 학습자는 물론 영어교육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에서 영문학 작품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영문학 작품은 제2언어는 물론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도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효용성은 주로 문학 텍스트의 진정성, 문화적, 언어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감동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영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외국어 교실에서 활용할 적절한 문학 텍스트의 선정과 관련된 고려사항들, 문학과 언어 기능의 교수 학습 방법들로서 영어교육에서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교육론에 관한 고려사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영어교육에 영문학을 전문적으로 접목하는 이른바 영문학 교육론의 기초가 될 것이다.

■ 중심어 : | 영어 교육 | 영문학 | 문학 텍스트 | 문학 교육 | 문학의 효용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use of English literary works. It will be helpful for both general English learners and college students majoring English Education in ESL or EFL context. English literature is very useful pedagogical tool in the language class due to its unique valuable characteristics including authenticity, cultural and linguistic value, and personal enrichment, which impact on fostering English ability of EFL students. For this reason, it is unavoidable to develop a theory and practice regarding using English literature as an educational resource for college students in Korea. In this study several considerations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selection of the literary works to be applied for language learning purpose in the classrooms of universities in Korea. Such attentions will include fours skills of English such as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Finally, som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using literary text as a pedagogical tool in the EFL language classrooms will be discussed.

■ keyword : | English Education | English Literature | Literary Text | Literature Education | Effectiveness of Literature |

\* 이 연구는 2017년 목원대학교의 연구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접수일자 : 2018년 06월 26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20일

교신저자 : 이종복, e-mail : jblee@mokwon.ac.kr

## I. 서론

영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활용은 문학적 가치가 가져다주는 교육적 목적은 물론 텍스트의 진정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적 언어교육에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언어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문학 작품이 언어교육에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열띤 논쟁이 있어왔다. 많은 교사들은 언어 교수에서의 문학의 활용을 흥미와 가치라는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1].

기본적인 언어의 네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함께 어휘, 문법, 발음 등을 위한 테크닉을 발달 시키는데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외국어 교수 학습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대중적인 방법이다. 더욱이, 문법 및 번역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전통적 언어 교수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학적 텍스트를 모국어로 읽기는 활동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는 번역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다른 교과에서 배운 언어의 어휘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문체적 지식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번역은 언어의 4기능을 다룰 수 있을뿐더러 언어 교수의 제5의 기능까지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언어 교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던 고전 문학 작품들의 역할로부터 시작된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작품의 활용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성행 하였던 19세기에는 외국어 교실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유행하던 당시에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번역할 주요 교실 학습 자료들은 문학작품이었다. 그러다가 직접식 교수법이나 구두 청각식 교수법등이 등장하면서 문학적 텍스트들은 언어 교실에서 구두 언어를 강조하는 경향에 따라서 점차 활용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영어 교육자들은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의 영향과 대입 수능시험 등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을 읽고 언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영어회화 등 소통중심의 영어교육과 토익 등의 취업을 위

한 시험 대비 영어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장차 영어교사가 될 사범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문학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교원 임용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 위주의 단편적인 문학 공부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 영어교육은 물론 전공 영어교육에까지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문학 작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문학을 전공 영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영문학 교육론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영어교육에서 문학에 대한 태도와 경향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문학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본질주의자(essentialist)와 비본질주의자(non-essentialist)가 그것이다[2-5]. 어떤 학자들은 문학 교육은 제2언어의 능력이나 능숙도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한다[3].

비본질주의자들의 입장은 언어 교수에 문학교육은 제한적으로 활용해야하며 제2언어의 적절한 능숙도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문학을 필수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다른 유형의 텍스트와 비교할 때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5]. 반면, 본질주의자들의 입장은 문화적 인식과[6-10], 비판적 사고[7][8], 외국어 교실에서의 동기 유발[6-9]뿐만 아니라 언어 능숙도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8][9][11].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문학의 가치에 대한 많은 저술과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12-14]. 문학은 교육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시이다. 외국어 교육에 문학 텍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15]. Lazar[8]는 언어 교실에서 문학이 사용되어야 하

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문학은 매우 동기 유발적이다.
- 문학은 진정성있는 자료이다.
- 문학은 일반적인 교육적 가치가 높다.
- 문학을 활용한 많은 교수요목이 있다.
- 문학은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문학은 언어습득을 자극해준다.
- 문학은 학생들에게 해석 능력을 발달시켜준다.
- 학생들이 좋아하고 재미있다.
- 문학은 높은 가치와 지위를 지닌다.
- 문학은 언어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준다.
- 문학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감정을 말하도록 촉진시킨다.

McKay[9]도 비슷하게 언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학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문학이 언어의 담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왜 구체적인 언어 형태가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며 이런 식으로 학생의 언어 인식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McKay는 학생들의 읽기 능숙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타문화에 대한 관용을 증진시키고 언어 교실에서 좀 더 창의적인 학생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등의 추가적인 장점에 대하여 언급했다. Spack[16] 역시 문화적으로 보다 더 관용적인 학습자를 만들어내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주는 문학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문학이 작문과 글 쓰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들어 좀 더 많은 연구들이 문학과 언어 학습에 관한 추가적인 논평들을 덧붙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Tasneen[17]은 언어 교실에서 문학을 사용한 방콕에 있는 한 국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문학 작품을 활용하였을 때 느끼는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하고 있으며, Bretz[18]는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의 사용을 비판적 사고와 이해력의 발달을 위한 발판의 역할로서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Inan[19]은 학생들이 문학 작품에서 진정성 있는 자료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이 의사소통에 대한 많은 이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과는 달리 언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활용과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 또한 존재한다[3]. 언어학적 난이도와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 때문에 언어 교사들은 언어 교실에서의 문학 작품의 장점에 대하여 꺼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유사하게 McKay[9]는 언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학의 활용에 대한 가장 흔한 의견 중에 하나는 언어가 구조적으로 복잡하며 특유의 언어 사용 때문에 문법의 지도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한쪽에서는 언어 교육의 목적으로 문학 작품 활용의 장단점이 교사들에 의하여 고려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실천가들이 언어 교육 과정의 자료로서의 문학 작품을 사용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문학을 사용하는 접근법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Lazar[8]인데 여기서 그녀는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 첫째이며, 그 다음은 그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모델에는 세 가지 접근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언어 기반 모델, 내용으로서의 문학 모델, 그리고 개인적 성장으로서의 문학 모델이 그것이다.

언어 기반 모델은 언어와 문학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법, 어휘, 담화 등의 범주를 문학 텍스트를 심미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내용으로서의 문학 모델은 문학을 기본적인 과정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적 텍스트들은 역사적 관점과 역사적 배경, 장르의 문제, 그리고 수사적 장치 등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분석된다. 개인적 성장으로서의 문학 모델은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서 개인적 경험과 의견, 감정을 반영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교실 활동의 기본적인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 2.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의 효용성

Collie 와 Slater[12]는 언어 교사가 교실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가치와 진정성있는 자료라는 점, 풍부한 문화적 가치, 풍부한 언어적 가치, 그리고 풍부한 개인적 감동이 그것이다.

### 1) 진정성

문학은 진정성이 높은 자료이다. 대부분의 문학작품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거의 없다.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언어의 진정성 있는 표본(예, 여행 시간표, 도시 계획, 각종 양식, 팸플릿, 만화, 광고, 신문, 잡지의 기사 등)들이 최근의 언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교실 맥락 속에서 학습자들은 실생활과 같은 실제적 언어 표본에 노출된다. 특히 언어 학습 초기의 생존 단계를 넘어선 수준에서는 문학이 그러한 자료의 유익한 보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문학적 텍스트를 읽을 때 학습자는 원어문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언어에 직면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형태의 언어적 형식과 소통 기능과 의미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 2) 문화적 가치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언어적 비언어적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소설 작품, 연극, 단편 스토리 등의 문학 작품은 원어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비록 그러한 소설이나 연극, 단편 스토리 같은 것들이 상상적인 것이지만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배경 속에서 풍부하고 화려한 언어와 소통의 양상을 보여준다. 독자는 그리하여 그러한 문학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살아가는 방식 즉, 그들의 사상과 감정, 관습과 전통, 소유물, 그들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받고, 두려워하며, 즐기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발견한다. 이렇게 화려하게 창조된 세상이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의 실제 생활 모습을 형성하는 신조와 선입관을 파악하게 도와준다. 문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대체물로 여겨져 왔다. 물론 현대 사회는 TV나 영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많은 간접적인 접촉이 가능하지만 언어라는 측면을 직접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매체는 역시 문학 작품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 3) 언어적 가치

문학은 학습자에게 폭넓은 개별적 어휘와 통사적 지식을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유의미한 맥락의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문어체의 많은 특징을 접하게 된다. 그들은 문장들의 통사적, 담화적 기능에 익숙해지고 구조의 다양성을 접하게 되며 많은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글쓰기 기술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또한 자신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언어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인식하게 될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잠재적 특성을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학습자는 진정성 있는 텍스트의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을 통해서 문화적 능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 4) 개인적 감동

문학은 독자에게 불어넣어주는 개인적 감동 때문에 언어학습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다. 일단 학생이 어떤 문학 텍스트를 읽으면 그는 그 텍스트에 머물게 되고 빠져들게 된다. 어휘적 항목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스토리의 전개를 추구하는 것보다 덜 중요해진다. 학습자는 사건이 전개되어 결말에 이르는 동안 일어나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열정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특정의 등장인물과 자신이 가까워지게 되고 그들의 정서적 반응을 공유하게 된다. 이것은 총체적 언어학습의 과정에서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습자의 필요와 기대, 흥미, 언어 수준 등과 관련된 문학 텍스트의 선정의 중요성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되게 하려면 어휘와 언어수준이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 3. 외국어 교실에서 활용할 적절한 문학 텍스트

외국어 교실에서 활용할 적절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할 때 언어교사는 학습자의 필요, 동기, 흥미, 문화적 배경, 학생의 언어 수준 등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어떤 특정 작품이 그 작품을 통해서 학습자의 흥미와 강렬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종의 개인적 감흥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문

학적 텍스트를 읽는 것은 그것이 의미 있고 감동적일 때 좀 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효과를 학습자의 언어학적 지식은 물론 언어학 외적 지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생활과 정서, 학습자의 꿈과 관련 있는 책을 선정하는 것은 언어의 난이도와 함께 고려해야할 주요 대상이다.

만일 문학 작품의 언어가 단순하다면 텍스트의 이해도를 촉진시키겠지만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흥미, 호소력, 관련성 등도 매우 중요하다. Collie 와 Slater[12]는 이와 관련하여 문학 작품에서의 즐거움 독자들의 마음속에 공감을 불러오는 논점으로 빠져들게 하는 신선한 통찰력, 독자의 마음속에서 사고와 상황이 작품 속에서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되도록 투영되어 가져다주는 즐거움, 혹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생겨나는 상황들이나 사고, 정서, 감정 등이 자신들과 똑 같은 것을 알아차릴 때 느끼는 희열로, 이런 모든 감정과 정서들이 학습자를 언어적 장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가 됨으로 자료에 어떤 식으로든 이런 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 III. 언어 기능 교수를 위한 문학 교육론

문학은 언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네 기능을 가르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어 교실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분리되어 가르쳐서는 안 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를 통합된 부분으로 언어 기능을 가르치려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단지 단어, 구, 절, 문장들에 대하여 구두 형태나 문자 형태의 측면에서가 아닌 추론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1. 문학과 읽기 교육론

EFL 교사들은 문학 작품의 이해를 위하여 역동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접근을 채택하여야 한다. 읽기 지도에서는 텍스트의 구체적인 참조를 통하여 대답될 수 있

는 배경, 인물, 구성 등에 관련된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을 통한 토의를 문자적 수준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자적 수준의 이해에 도달되면 추론적 수준으로 이동해 간다. 여기서는 학습자들이 작가의 관점을 드러내는 인물, 성격, 배경, 주제 등에 관하여 구체화되고 해석적인 관점으로 옮겨가게 된다.

문자적, 추론적 수준에서의 문학적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학생들은 통합된 학습의 준비가 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인물과 주제, 작가의 관점 등에 관한 작품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또한 작품에 대한 자연적 문화적 논점과 주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공유하는 미묘한 시간이기도 하다.

마지막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작품에 대하여 상상적으로 사고하는 개인적, 평가적 수준과 유사한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단계이다. 이러한 의문에서 비롯되는 토론은 학습자들이 구두나 문자적 활동의 기초가 된다[20].

#### 2. 문학과 쓰기 교육론

문학은 모델이나 주제 모두에서 영어 쓰기 학습을 위한 강력하고도 동기유발에 훌륭한 자원이 된다. 모델로서의 문학은 학생의 글쓰기가 본래의 작품과 매우 유사한 것일 때 유용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은 글의 내용이나 주제, 글의 구성 혹은 문체 등에서 모방적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글이 해석이나 분석과 같이 본래의 생각이 읽은 글로부터 나왔거나 창의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경우 문학은 글쓰기 주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문학은 유도된 작문, 통제된 작문 혹은 기타 다른 유형의 글쓰기를 위한 많은 양의 다양한 주제를 수용한다.

##### 1) 글쓰기 활동 모델로서의 문학 교육

문학에 기반을 둔 글쓰기 모형은 통제된 글쓰기, 유도된 글쓰기, 재생산 모형 등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통제된 글쓰기 모형은 주로 초급 수준의 전형적인 글쓰기 활동으로서 대부분 구체적인 문법 구조들을 연습하기 위한 임의적인 방법으로 읽은 내용을 고쳐쓰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생방송 뉴스를 진행

하는 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혹은 3인칭 시점의 글을 1인칭 시점으로 바꾸어서 글을 바꿔 쓰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유도된 글쓰기 모형은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가능한 모형으로 학생들이 일련의 질문에 응답하거나 주어진 모델을 이용하여 요약하기, 다시 말하기, 결합하기 등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어진 묘사글이나 고쳐쓰기 혹은 요약글 쓰기 등에서 주제문이나 첫 몇 문장이 주어지면 이것을 활용하여 글을 완성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유도된 글쓰기 연습은 특히 문자적 수준에서 작품을 이해하게 된다.

재생산 모델은 고쳐쓰기, 요약하기, 개작하기 등과 같은 기법들로 구성되는 모형이다. 이 기법들은 ESL/EFL에 매우 유용한 글쓰기 연습이다. 고쳐쓰기에서는 학생들이 듣거나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도록 요구된다. 고쳐쓰기 기법은 학생들이 시를 이해하는 노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 시작품을 활용할 때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요약하기는 사실주의적인 단편 소설이나 연극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사건들이 주로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며 플롯, 배경, 인물 등처럼 학생들에게 쓰기를 유도해주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15]. 개작하기는 산문체의 허구적 이야기를 대화글이나 연극으로 다시 쓰거나 반대로 연극이나 시나리오를 서술적 형식으로 고쳐 쓴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문어와 구어 영어 사이의 변이형들을 인식하게 해준다[20].

## 2) 글쓰기 주제로서의 문학 교육

글쓰기는 그 자체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글쓰기 교실에 적합한 자료를 찾는 것이 때로는 용이치 않을 수 있다. 작문 과정에서 문학을 읽기 자료로 사용할 때 한 가지 장점은 읽기가 작문을 위한 주제가 된다는 것이다[16]. 문학이 읽기 자료가 되는 작문 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추론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텍스트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래서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 과정을 배운다. 그러한 훈련이 논리적인 추론과 독립적인 사고,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을 요구하는 다른 교과에도 도움을 준다. 문학을 주제로 한 글쓰기는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학에 대하여 글쓰기와 문학으로부터 글쓰기이다.

문학에 관하여 글쓰기는 전통적인 과제들로 구성된 다. 질문에 단락으로 응답하기, 집에서 작문 써오기와 같은 과제인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품을 분석하거나 문학적 장치와 문체를 추측한다. 문학에 대한 글쓰기는 학생들이 작품을 읽기 전에 행할 수도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주제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논점에 대하여 토론을 유도하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그에 대한 생각을 쓴다. 이런 활동은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작품을 읽고 작품에 대하여 쓸 준비를 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읽기 후 뿐 아니라 읽기 중 쓰기 과제는 교실의 토론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형식을 취하는 데 질문에 답하기, 토론할 내용 주장하기, 혹은 확장될 주제들, 토론 그룹 만들기 등이 있다.

문학으로부터의 글쓰기란 문학 작품을 작문의 발판으로 삼는 글쓰기로 주로 플롯, 인물, 배경, 주제, 비유적 언어 등을 중심으로 발달시키는 창의적 글쓰기 과제를 의미한다. 문학으로부터의 글쓰기는 많은 형태가 있는데 작품에 보태어 쓰기, 작품을 바꾸어 쓰기, 극의 영감을 받은 글쓰기, 작품속의 인물에게 쓰는 편지 등의 방법이 있다[16].

이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작품에 보태어 쓰기는 상상적인 에피소드나 작품의 속편을 쓰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드라마의 경우는 무대외적인 끼워 넣기 장면을 창작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대화문을 만드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작품을 바꾸어 쓰기는 학생들이 작가의 종결과 비교되는 자신들이 창작한 종결을 쓰는 것을 들 수 있다. 단편 스토리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시 쓸 수도 있고 일부분을 인물의 시점을 바꾸어 3인칭 화자의 시점이나 작가 전지적 시점 등으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극의 영감을 받은 글쓰기는 연극이나 단편소설, 소설, 시 등을 활용한 글쓰기 활동으로 학생들은 등장인물의 의식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인물의 태도나 감정에 관하여 글을 쓰는 것이 가능

하다. 작품속의 인물에게 쓰는 편지에서는 학생들은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에서 인물에게 특성의 문제나 상황을 어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하여 개인적 질문이나 충고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20].

### 3. 문학과 듣기, 말하기 교육론

언어 교실에서 문학 교육은 비록 읽기와 쓰기에 치중된다 하더라도 듣기와 말하기 지도에도 같은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20]. 소리 내어 읽기, 극화하기, 즉흥극, 역할극, 재현하기, 토론, 소그룹 활동 등은 문학을 통한 음성 언어 학습의 중심이 된다. 언어 교사는 듣기와 발음 학습을 상급 수준에서는 문학 작품을 녹음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낭독을 시킴으로서 흥미롭고 동기가 유발되며 맥락화된 활동으로 만들 수 있다.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을 큰소리로 낭독시키는 것은 듣기 능력과 함께 말하기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발음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발음은 읽기 전, 중, 후 지도의 초점이 된다.

문학 작품을 극화하는 것은 영어교육에서 매우 값진 활동이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작품의 플롯에 대한 이해와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해 줌으로서 동기를 유발시켜주기 때문에 구두 소통능력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속화시켜준다. 수업에서 연극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데, 주요 형태는 극화하기, 역할극, 즉흥극이 있다.

극화하기는 대본화 된 자료를 교실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단편 스토리나 소설의 일부분을 대본으로 만들고 그것을 최대한 실제의 텍스트와 가깝게 개작한다. 스토리에 기반을 두고 학생들은 인물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추측해야한다. 물론 학생들이 작성한 대본은 연극으로 공연이 가능하다.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시도 역시 학생들에 의해서 대본으로 개작될 수 있고 학생들은 할당된 부분의 대화를 미리 주의 깊게 읽고 인물과 플롯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나 숙어 그리고 발음할 수 없는 단어들을 표시해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파트너와 함께 장면을 연습한다. 비록 학

생들이 대본을 다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시선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고 대본의 의미와 감정으로 행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더욱이 학생들은 극화된 활동을 통하여 얼굴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서 장면을 무대에서 펼칠 때 미묘한 의미에 대하여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극화한 스토리를 교실 앞에서 발표하게 된다.

즉흥극이나 역할극은 모두 문학 작품의 인물, 플롯, 주제를 중심으로 발전된다. 즉흥극은 역할극보다는 좀더 체계화된 활동으로 대본이 없는 극화하기라고 할 수 있다. 즉흥극에는 시작, 중간, 종말로 구분 가능한 플롯을 가진다. 그러나 역할극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뷰나 패널 토론처럼 극화하기 보다는 읽은 작품으로부터 말하기 활동으로 연결한 인물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소그룹 활동에서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토론하고 기여한 생각이나 사실들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그룹 활동에서 모든 참여자들을 자극한다[8][9]. 모든 학생들은 함께 참여하여 다각도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문학을 통한 영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활동은 토론, 소그룹 활동, 패널 토론, 집중 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이런 모든 그룹 활동은 학생들의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키고 발음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준다.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 중에 발음의 오류를 발견하면 표시해두었다가 오류를 나중에 수정해 주어야 한다.

### IV. 결론 및 제언

문학은 많은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를 가르치는데 문학을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먼저 외국인 교사들이 교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교육학적으로 잘 디자인 된 자료가 드물다. 따라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는 순수 문학 작품의 원전을 통해서 작품을 읽고 감상하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분야에서의 준비가 덜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영문학 전공이나 영어교육 전공 과정에서 대부분 문학을

영어 학습의 도구로서 활용하기보다는 문학적 가치를 탐구하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는 문학 수업에서는 발음이나 말하기 능력 등의 영어 능숙도는 문학 공부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 문학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경계나 목표가 없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과목과 영어를 가르치는 교과목의 목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두 개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교과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방하다. 따라서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영어 교실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그리고 영문학 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적절한 교사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 바로 영문학 교육론의 역할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선 급한 일은 영어 전공이나 영어교육 전공 교육과정에서 영문학을 매개로하는 영어 교과목, 혹은 영어학습의 목표로 하는 영문학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영어 교육전공 학생들에게는 영어 학습을 위한 영문학 공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몇 가지 이유에서 타당하다. 첫째는 영어교육 전공 학생들은 장차 영어 교사가 되어 중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영어 교실은 수능 상대평가에 억눌려 진정한 의미의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수능에 출제되는 경향에 맞춘 수업을 진행해왔던 면이 크다. 특히 교과서 중심의 수업보다는 EBS 수능 대비 교재가 오히려 더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되어온 면이 있다. 앞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더불어 우리 중등학교의 영어 교실이 좀 더 청소년기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영어 교실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지도에는 교과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영어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교원 임용 시험이라는 막중한 관문이 커다란 장애로 남아있다. 임용 시험의 전공 영어 문항 중 문학의 비중은 시, 소설, 희곡 등의 주요 분야에서 각 한 두 문제씩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순수 문학적인 이론이나 비평 보다는 독해 능력과 관련된 일반 영어 학습과 관련된

방향으로 질문이 모아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영어교육과의 문학 수업은 좀 더 영어 학습을 위한 영문학 학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학습은 어휘나 수사적 기법 등에서 고급 영어 학습을 지향할 수 있다[9]. 문학은 앞서 살펴본 대로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심리 상태나 작가의 깊은 지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의 묘사 또한 비유적 언어와 상상 등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일반 영어 학습에 활용되는 단순한 표면적 의미를 주로 다루는 텍스트들과는 다른 깊이 있는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8].

이렇게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교육을 시행하는데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첫째,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에 관련하여 영어 교수 학습의 목표를 결정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된 설문이나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 요구와 기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교수 학습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적절한 교수 방법, 교수 기법, 그리고 교실 활동 등의 절차를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교수 학습의 목적과 목표에 적합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 영어 학습에 사용될 문학 텍스트를 선정 할 때는 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흥미, 나이, 성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학생들이 부적절한 텍스트로 인한 지루함을 피하고 적절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다면적인 고려에 기반을 둔 영문학 교육론은 영어 교육의 깊은 토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기에 영어 학습을 통하여 보다 깊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인문학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H. Sage, *Incorporating Literature in ESL Instruc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7.
- [2] R. Donato and F. B. Brooks, "Literary discussions and advanced speaking functions:



- Researching the (dis)connection,” *Foreign Language Annals*, Vol.37, No.2, pp.183-199, 2004.
- [3] W. Edmondson, *The role of literatur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some valid assumptions and invalid arguments*, *AILA Review*, 12, 1997.
- [4] V. M. Scott and H. Tucker, (Eds.), *SLA and the literature classroom: Fostering dialogues*, Boston, MA: Heinle, 2002.
- [5] D. Yuksel, *The nature of discussions in an advanced-level literature course in a Turkish EFL se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allahassee: Florida State University, 2007.
- [6] A. Akyel and E. Yalcin, “Literature in the EFL class: A study of goal achievement incongruence,” *ELT Journal*, Vol.44, No.3, pp.174-180, 1990.
- [7] I. Ghosn, “Four good reasons to use literature in primary school ELT.,” *ELT Journal*, Vol.56, No.2, pp.172-179, 2002.
- [8] G. Lazar,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9] S. McKay,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Vol.16, No.4, pp.529-536, 1982.
- [10] D. Shanahan, “Artic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Toward a new agenda for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Vol.81, No.2, pp.164-174, 1997.
- [11] H. G. Widdowson, *Stylistics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 Essex, UK: Longman., 1984.
- [12] J. Collie and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CUP, 1990.
- [13] P. Johnson, “Effects on reading comprehension of language complexity and cultural background of a text,” *TESOL Quarterly*, Vol.10, No.2, pp.221-239, 1981.
- [14] H. G. Widdowson, “Talking shop: Literature and ELT,” *ELT Journal*, Vol.37, No.1, pp.30-36, 1983.
- [15] R. Carter and M. N. Long, *Teaching literature*, New York, NY: Longman, 1991.
- [16] R. Spack, “Literature, reading, writing, and ESL: Bridging the gaps,” *TESOL Quarterly*, Vol.19, No.4, pp.703-725, 1985.
- [17] W. Tasneen, “Literary texts in the language classroom: A study of teachers’ and students’ views at international schools in Bangkok,” *Asian EFL Journal*, Vol.12, No.4, pp.173-187, 2010.
- [18] M. L. Bretz, “Reaction: Literature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A springboard for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and aesthetic appreciation,” *Foreign Language Annals*, Vol.23, No.4, pp.335-338, 1990.
- [19] B. Inan, *Teaching the humanistic culture of Socrates, Erasmus and Thomas More through textual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zmir, Turkey: Dokuz Eylül University, 2009.
- [20] S. Stern, *An Integrated Approach to Literature in ESL / EFL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urcia, M. Boston(ed): Heinle & Heinle Publishers, 1991.

저 자 소 개

이 중 복(Jongbok Lee)

정회원



• 2007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영어학습자의 개인차, 언어정책, 교사교육, 영문학 교육